

정부, 바이오·에너지 선도기술 발굴

지경부, 자동차·IT 포함 10대 기술 개발 ...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도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10대 선도기술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 황창규 단장은 5월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상근 투자관리자(MD) 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5대 부문별 비전과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2010년까지 2020 비전을 통해 10대 선도기술을 우선 발굴하고, 세계 1위 사업을 적어도 100개 육성해 융복합화가 산업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R&D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었지만, 국가 R&D는 전략에 입각한 탑다운(Top-down)이어야 하며, 융복합화를 통해 중단기적인 차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산업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력산업 분야 비전으로는 융복합화를 통한 토털 솔루션 구현을 제시했다.

자동차와 철강은 2020년까지 세계 4위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체 시스템 속에서 R&D를 구상해 미래 주력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스마트 월드 구현을 목표로 IT(정보기술)와 다른 산업을 융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부품소재는 상대적으로 뒤쳐진 원천소재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은 소극적이고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수소에너지와 미래형 원전, 스마트그리드 등 분야에서 공격적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융합신산업은 급성장이 예상되는 BT(바이오기술) 분야에 집중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우선 추진한다.

황창규 장관은 대기업과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아직도 대기업이 부족하다”며 “최근 삼성이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시장의 메가트렌드에 들어가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4>